전주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4만8484명에게 1·2차 걸쳐 1인당 10매씩 마스크 지급키로

전주시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전주시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기초수급자 중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총 5만 여명에게 1인당 10매씩 총 50만 여매의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은 손 씻기와 더불어 개인위생을 위한 대표적인 감염병 예방방법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배부하게 된다.

우선 시는 이날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9846명과 심한 장애인 4616명 등 1만4462명에게 1인당 5매씩 총 7만2310매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이어 오는 13일까지 저소득층 3만324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일 기초수급자 가운데 만성질환자 3698명에게 1만8490매의 마스크를 배부한 상태다.

시는 이를 위해 마스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16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1차 지급량 24만2420매를 확보했다. 이어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이달 중 전체 취약계층 4만8484명에게 1인 5매씩 24만2420매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이 정부의 공적마스크 수급량 상향 조정과 5부제 시행 등으로 인한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 속에서 감염병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되는 일제소독의 날과 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1355명과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259명 등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공무원, 통장 등이 함께 실내 소독을 실시한다.

김승수 시장은 "모든 재난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 깊고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충분하지 않지만 사회적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남노송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

2023년까지 총 43억원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생활인프라 확충 사업 등 진행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남노송동 일원이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게 됐다.

전주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대상지역에 남노송동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주시가 함께 이뤄낸 성과로, 전주에서 취약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된 것은 팔복동 추천마을과 풍남동 승암마을, 진북동 도토리골에 이어 4번째다.

남노송동 일원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의 약 70%이고, 공·폐가가 17%를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또, 4m 이하의 좁은 골목길 등으로 이뤄져 있어 주민들의 보행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노송동 노후주거지 일원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30억 등 총 43억원을 투입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안전시설 및 소방도로 확충 등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돌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사업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보안등과 소화전,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한 텃밭 운영과 원예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5년 팔복동 추천마을(총사업비 7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풍남동 승암마을(총사업비 43억원), 2019년 진북동 도토리골(총사업비 43억원) 등 3개 지역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전개해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7년 연속 선정

올해 전국 최다 12명 채용

주민 사랑방인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나선 전주시가 전문 운영인력을 선정해 주민들의 독서생활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0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7년 연속으로 선정돼 올해 12명의 전문 순회사서를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에 전문 운영인력(사서)을 지원해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전국 최다인 원인 12명의 전문 순회사서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3월 중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모집공고를 진행해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12명의 순회사서를 채용할 계획이다.

선발된 순회사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최대 48개의 사립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선정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독서문화프로그램 지도, 운영자 실무교육 등 작은도서관 핵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립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063-230-185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대민서비스 근로자에 손세정제 전달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대민서비스 근로자들의 안전 챙기기에 나섰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달종사자와 도시가스 검침원, 시내버스 기사, 택배 기사 등 대민서비스 근로자 1500여명에게 천연성분 손세정제 제작키트를 배부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근로 중 다수의 사람과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함과 동시에 일선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시민안전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 격리환자 집에 등기우편을 배달하는 집배원의 사례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골목골목 찾아가는 방역봉사 △천연성분 손세정제 제작 키트 나눔행사 △중국인 유학생 맞춤형 사랑의 꾸러미 전달 △지역상권 살리기 착한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 등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향토기업인 전주페이퍼는 9일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코로나19 구호성금 10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후원의 손길 이어져

전주페이퍼·전주비전대·예닮교회, 전주시에 성금 기탁

전주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주지역 기업과 기관, 종교단체의 성금이 잇따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전주시 향토기업인 전주페이퍼(공장장 김경식)는 이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코로나19 구호성금 10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도 교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효자5동 소재 예닮교회(담임목사 조주만)도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에 써달라며 300만원의 구호 성금을 기부했다.

시는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을 활용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과 4일에도 전주중부교회와 남부새마을금고 학산지점, 평화1동 빛교회에서 각 100만원의 성금을 시에 기탁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식 전주페이퍼 공장장은 이날 "지역에서 전주의 특산품인 종이를 판매하며 기업이 자라온 만큼 어려운 때일수록 보답을 하는 게 기업의 책무"라며 "작은 정성이 모아져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